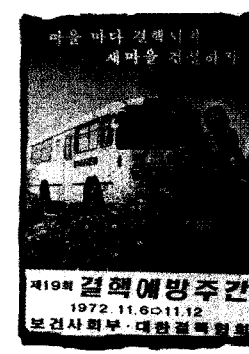
그 때를 아시나요?

'결핵퇴치'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

음반 "결핵없는 내일"

196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평화봉사 단원들이 한국에 파견되어 영어교육과 보건사업에 종사하였다. 특히 일선 보건소의 결핵관리 요원으로 활약했는데, 2년 임기를 마치고 1969년 11월 귀국한 제1진 단원들이 자신들이 작사 작곡 취입한 "결핵 없는 내일"과 한국 민요 등이 담긴 레코드판을 만들어 모금을 했으며, 그것을 결핵퇴치 기금으로 희사했다. (한국결핵사)

결핵예방주간행사



협회는 창립연도인 1953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주간을 결핵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집중적인 홍보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결핵예방주간 행사는 195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10월, 11월, 12월 중 일주일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결핵 홍보 캠페인을 위해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신문과 라디오 등 매체 보도를 통해 결핵의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대한결핵협회 50년사) ✝